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스가랴 4:1-6, 사도행전 1:1-8

정윤돈 목사님

카렌 지역은 세계복음화전도협회가 제일 먼저 선교지로 응답받은 뜻깊은 지역이다. 카렌족은 난민이어서, 세계 어디로도 갈 수 있다. 영어도 잘 한다. 영어 못하는 한국인이 어떻게 가서 전도하나 봤더니, 카렌족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복음을 받고 있다. (웃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큰 문을 여실 것이다.

서론 : 사도행전 개요

(1) 오늘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
(2) 1차적인 수신자는 데오빌로다. 누가복음 1:2-3에 보면 사도행전 1장과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 전편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나온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군에서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소장이 장로님이고 대장이 집사님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투 스타를 보고 포 스타가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웃음) 조금 있으니까 무궁화 세 개가 들어왔는데, 별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했다. 이분이 목사님이어서 그렇다. (웃음) 누가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데오빌로가 고위 공직자니까 '각하'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계급장을 떼고 이름을 부른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깊이 성경을 알고 싶어지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싶어지게 된다. 데오빌로가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일 것이다.

(3)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① 데오빌로의 양육이다. 하루아침에 양육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계속 만나고 돕고 양육하다가 나온 결론이 사도행전일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메시지만 듣게 하다가, 나중에는 책도 읽게 하고, 나중에는 녹취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나. 처음에는 팔짱 끼고 듣다가도, 은혜를 받으면 적게 되어 있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요즘 성도님들 중에서 메시지를 반복해서 듣고 녹취하는 분들이 많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말씀을 사랑하니까 기록하게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양피지에 겨우 필사했는데, 요즘 기록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편한가. 그 시대에 누가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기록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것을 데오빌로를 위해서 써서 보낸 것이다.

② 두 번째 목적은, 초대교회의 전도, 선교 사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이었다.

③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일 텐데,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전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세우며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방법, 전략이 사도행전 속에 다 드러나 있다. 바울은 그냥 성령인도를 받으며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모든 것을 담게 하셨던 것이다. 전도 현장에 가 보면 사도행전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선교지에 가면 다 예비된 제자가 있다. 이 제자가 발견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믿게 되지 않았나? 지금도 카렌, 필리핀 같은 곳이 그렇게 모이고 있다. 한국도 그러했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운동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다. 지금 광장에서 대결하고 있는 모임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다.

④ 넷째,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는 현장의 영적 문제를 잘 알 수 있다.

⑤ 다섯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 성령인도를 따라서 되어졌다. 인위적으로 된 것이 없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공부하고 직장에 가는 모든 것이 완전한 성령인도를 따라서 될 줄 믿는다. 내 생각은 필요하지 않다.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계획대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게 된다. 사무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1. 전도자의 삶의 본질 21가지로 사도행전 전체를 재해석해 보자.

(1)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다.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과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다. 이 사람들은 다른 동기가 전혀 없었다. 동기를 가진 자는 순교하는 현장에 모일 수 없었다. 오직 예수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것이다.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었다. 돈이 많아서 충분한 게 아니다. 이치선 자매는 교통사고로 전신에 중화

상을 입고 30, 40번을 수술했는데, 이번에 UCLA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시더라. 그분을 내가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났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데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이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 2장이다. 성령충만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도 어릴 때 불치병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어느 권사님에게 기도를 받았더니 치유되어 버린 것이다.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예수 믿는 것을 갈등해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일을 미룬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치유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무시로 기도했다. 모든 것을 헌신하고 전 재산을 드려도 갈등이 없었다. 요즘은 전 재산 헌신하는 이들은 이단뿐이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헌신할 수 있다. 안 그러면 헌신하다가 시험에 빠진다. 나는 부모님을 보니까, 그렇게 사회복지사역을 하면서 헌신하는데도 갈등하는 모습이 없었다.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응답을 주셨다. 재산이 있어서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성령의 감동으로만 헌신도 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도전했다. 세계를 살리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복지로, 삶으로, NGO로, 문화로, 우리나라가 할 일이 너무 많다. 또, 스스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만남의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

(2) 천명, 소명, 사명이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많이 나온다. 스테반은 순교자의 천명을 기쁨으로 감당했다. 빌립은 세계복음화의 소명을 받고 사마리아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도록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마침내 바울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위탁 받았다.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번 사순절 집중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란다. 이 속에서 나의 업, 나의 전도, 나의 선교를 발견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복음을 정확히 알 때 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나는 '멀망하는 나, 사단에게 속는 나, 세상에 끌려가는 나'일 뿐이다. 결국 우상을 섬겨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도, 내가 원하는 나도 아니다. 복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한다. 그 때 나의 현상이 보이게 된다.

(3)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한 응답, 필요한 응답, 절대적인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사도행전 2:43-47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다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 그 헌신이 필요할 때 그렇게 하면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사도행전 16:15에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했다. 심방과 미션 홈의 필요성을 알았던 것이다. 이번에 심방을 하는데, 전도자 사도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갔을 때, 그곳은 숙소가 아니라 선교 센터가 되었다. 가정마다 말씀운동을 하면, 그때마다 느끼게 된다. 이곳이 선교센터인 것이다. 집을 오픈하고 말씀운동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가정의 말씀운동의 센터가 되고, 전도자를 초청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생명운동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가능하다. 그러자 그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세계복음화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었다. 그것이 다락방이다. 가는 곳마다 팀을 이루어서 다녔다. 어떤 일을 하든지 팀이 형성되어야 한다. 가는 곳마다 미션 홈을 만들었다. 전문사역, 지교회들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4) 일심, 전심, 지속이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일심, 전심, 지속의 모델이다. 그들은 세상과 자신 안에 있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심, 전심, 지속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드디어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존재요 기뻐해야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필요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것이 항상 문제 아닌가. 말씀과 삶의 간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 간극을 메워 버리시기 바란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개개인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계속 경험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갈수록 문제가 생긴다. 복음 안에 있어야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5) 오직, 유일성, 재창조다. 오직을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베드로다. 유대인 지

도자 앞에서 이것을 제대로 말한 것이다. 사도행전 4:12에,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가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신천지 같은 집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가? 구약에 500번 이상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은 삼십에 팔릴 것, 십자가에 달릴 것, 죽으실 것, 흠도할 것 없는 외모까지 다 예언되었다. 성인과 종교 지도자 중에 이렇게 예언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누가 몰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예를 들어 엑소나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잠실에서 한다 하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겠나?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와 감자튀김으로 오천 명을 먹이고, 한강 위를 건너간 사람이 있는가. (웃음)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 인류 역사상 아빠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만희, 문선명 모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믿어진다. 우리가 똑똑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된 것이다. 오직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같은 말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말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오직 하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과 그 후손들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라. 후손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모른다. 만일 우리 성도와 자녀들이 오직만 확실히 해도 모든 분야에서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이다.

(6) 24, 25, 영원이다. 바울과 성도들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24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체험했다.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려냈다. 헬리대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 해가 없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성도들의 기준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24의 고백을 한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시기 되기를 바란다.

(7) 각인, 뿌리, 체질이다. 유대인들은 각인된 것을 바꾸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세상, 물질, 성공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로마인들은 죄가 없음을 알고도 바울과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참 복음을 깨달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전도의 체질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게 된 것이다.

2. 성령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자.

(1) 그리스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한다(사도행전 1장).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15개 나라의 방언을 각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한국어로 말해도 외국어처럼 못 알아듣는데 말이다. (웃음)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복음을 알아듣는 역사가 주변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다. 내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상담을 해 보니까, 마약을 끊은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부모님 따라 교회에 갔다가, 전혀 모르는 찬양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받고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하던 마약이 생각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어떤 사람이나 하고 불신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 전도, 선교, 모든 만민, 우리의 치료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과 업 위에, 교회 위에 임할 줄 믿는다.

(3)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앉은뱅이가 일어났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 어라.” 성령충만을 받을 때 불가능한 것도 치유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공회 앞에서 당당히 고백하는 것이다(사도행전 4장).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무엇이 달라졌는가? 성령충만을 받은 것이다. 이때 베드로는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는다.

(3) 5장에 보니까, 이런 대역사가 일어나도 문제가 일어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더 발악한다. 그래서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핍박이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가 세워진다(사도행전 6장). 환난과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환난, 어려움, 갈등을 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과정, 어려움을 통해 제자가 찾아진다. 어려움을 겪을 때 날아가 버리는 쪽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시기 바란다. 스테반 집사는 평신도로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되었다(사도행전 7장).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선교를 사도들보다 더 먼저 깨닫는다. 우리가 하려 하는 운동이 이것

이다.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 위에 시대적 전도자인 바울이 부르심을 받게 된다(사도행전 9장). 유명한 사도, 목사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다. 램넛트, 평신도가 준비될 때 하나님은 목회자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로마 백부장이 나온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시대와 나라를 살릴 인물을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이다. 이번에 세계선교대회에 바누아투 외무부장관과 국회의장이 방문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면 이방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스테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집중하는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게 된다(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교회에 온 핍박 이후에 오히려 세계선교하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다. 베드로가 투옥되었는데 감옥 안에서 너무 평안한 잠을 잤다. 천사가 깨우고 데리고 나가니까 옥문이 열린다(사도행전 12장).

(4) 사도행전 13장에, 이제는 준비가 된다. 세계복음화할 선교사를 파송하는 시간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팀을 형성해서 세계선교를 출발한다.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낸다(사도행전 14장).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하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도시의 이름과 제자의 이름이 꼭 나온다. 여러분이 그 지역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어느 직장의 제자가 되시기 바란다. 16장에는 루디아, 17장에서는 아손, 18장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만나서 지역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세계 선교를 할 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5) 큰 역사가 일어나면 큰 환난이 일어나는데,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새로운 곳에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다. 그래서 20장에서 26장까지, 2년 넘는 기간 동안 핍박을 받고 고발을 당하며 재판을 받았지만, 그는 심판대 앞에 서서도 복음을 전했다.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천명을 굳게 붙잡았다.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로마로 가는 길에서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다. 28장에서는 드디어 로마로 입성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모으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교를 해도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러나 부족하게 전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면 제자가 찾아지고 현장의 문이 열릴 것이다.

결론 :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의 역사

결론을 말씀드리겠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

(1)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를 할 수 있다. 설명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직 예수 되시기를 바란다.

(2)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 때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날 것이다.

(3) 우리는 땅 끝으로 갈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 우리의 땅 끝이다. 모든 나라, 모든 도시, 모든 족속에서 땅 끝의 응답을 받으라. 과거에 예루살렘은 시작이었다. 이번에 C국에서 핍박이 많이 나서, C국 지도자들을 따로 모아서 제주도에서 훈련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정통과 유대인이 왔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더니 들으면서 계속 우는 것이다. 유자연 사모님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 거절했는데, 1주일 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이 승낙하고 들어왔다. 그래서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꼭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해달라 하는 것이다. 내가 갈 때 여러분도 꼭 같이 가시게 되면 좋겠다. C국 지도자들이 계속 와서 훈련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팀을 형성시켜 주시고 계신다.

(4) 성령이 역사하시면 집에서, 회당에서 계속 역사가 일어난다. 핍박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5)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중독, 우상, 무속, 중독의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되게 될 것이다. 스가랴 4:6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줄 믿는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의 지성과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달을 수 없고,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할 수 없는 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발견하게 하시고, 미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